

# 구스범스® 호러특급 시리즈



## 구스범스 호러특급 1 좀비 핼러윈 파티

글 R. L. 스타인 | 그림 김성용 | 옮김 김선희  
232쪽 | ISBN 978-89-6548-301-4(74840)

## 구스범스 호러특급 2 프랑켄슈타인의 개

글 R. L. 스타인 | 그림 안병현 | 옮김 김선희  
180쪽 | ISBN 978-89-6548-302-1(74840)

출간일 2015년 10월 29일 | 세트 ISBN 978-89-6548-300-7(74840)  
패키지 소프트커버 · 변형판 140x205 | 연령 10세 이상 | 각권 값 8,500원



비룡소의 색다른 상상력 브랜드

## 전 세계 4억 2천만 어린이가 선택한 「구스범스」 구스범스의 괴물 어벤저스가 출동한다!

전 세계 어린이 책 베스트셀러 2위를 기록하며 열풍을 불러일으킨 「구스범스」. 그 새로운 시리즈 「구스범스 호러특급」이 출간되었다. 「구스범스」는 2014년 6월 국내에서 첫 출간된 이후로 10만 부 이상 판매되며 마니아층을 두텁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 10월 16일 미국에서 개봉 즉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영화 「구스범스」의 국내 개봉(2016년 1월)으로, 구스범스 열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구스범스 호러특급」은 「구스범스」 100여 권의 책에 나온 캐릭터 가운데 독자들에게 가장 열렬한 환호를 받았던 괴물들을 다시 불러냈다. 좀비, 프랑켄슈타인, 크리스마스 유령 등, 가히 '구스범스 괴물 어벤저스'라고 부를 만하다. 20여 년 동안 100권이 넘는 구스범스를 내놓으며 다져진 스타인의 내공을 압축한 최신 작품들이다.

그래픽노블 스타일의 디테일한 펜 선과 강렬한 색감의 그림체가 한껏 강력해진 공포감을 실감 나게 해주며, 부록 '서바이벌 가이드', 특별 부록 캐릭터 카드가 또 다른 재미거리를 안겨 준다.

### 어린이의 생활 속 공포를 투영하는 초강력 호러 캐릭터!

「구스범스 호러특급」 시리즈의 괴물 주인공인 좀비, 프랑켄슈타인은 영화와 게임, 만화, 소설,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오싹한 이야기에 무수히 불러 다니는 단골 캐릭터들이다. 흔히 좀비는 '살아 있는 시체'로 불리며 욕망과 본능으로 가득 찬,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괴물로 그려진다. 프랑켄슈타인은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죽은 자의 살과 뼈를 이어 붙여 창조한 괴물로 머리에 나사못을 박고 있는 흉측한 외형으로 유명하다. 이처럼 끔찍한 괴물들이지만 우리 일상 속 대화에서 이 괴물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이들을 친근하게 느끼기도 하는 것이 분명하다. 반쯤 죽은 것 같은 무기력한 사람을 '좀비'라고 비유하는가 하면, 성형을 하는 등 신체의 일부분을 인위적으로 바꾼 사람에게 '프랑켄슈타인 같다'라고 부르는 식이다.

스타인은 이 캐릭터들을 어린이의 감수성에 맞도록 새롭게 탄생시켰다. 잔인하거나 폭력적이지 않으면서도 시시하지는 않도록 캐릭터를 변주했음은 물론, 최고 지상주의 아래 억눌린 현대 어린이의 환경과 불안한 마음을 호러 캐릭터에 투영한 것이다.

**1권 『좀비 핼러윈 파티』**에서는 새 동네로 이사와 새로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주인공의 두려움을 좀비로 드러냈다. 좀비에 집착하는 새 동네 사람들, 너무 낡아 혐오스럽기까지 한 새집, 가까워지기 힘든 옆집 아이... 낯설고 혼란스러운 마음뿐인 주인공 앞에 진짜 좀비가 나타난다.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낡은 집과 지하 굴을 둘러싼 좀비 미스터리를 서서히 밝혀 간다.

**2권 『프랑켄슈타인의 개』**에서 괴물은 모태가 되는 소설 『프랑켄슈타인』과 굉장히 다르다. 인공지능 로봇으로 그려지기 때문. 이 괴물들이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든 창조물이라는 설정만 같을 뿐이다. 주인

공 아이는 꼭 인간처럼 체온이 있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 괴물에게 공포심을 느낀다. ‘과학 기술이 인간의 삶을 지배할까?’ 하는 상상을 한 번쯤은 해 봤음직한 어린 독자들을 자극하며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한다.

## 공포에 맞서는 아이들의 짜릿한 모험 이야기

이 시리즈는 좀비나 프랑켄슈타인, 유령 등의 초자연적인 존재들로 인해 주인공들이 겪게 되는 아찔하고도 오싹한 경험을 담는다. 넘쳐 나는 호기심으로 지하실 아래 굴, 접근 금지된 방 같은 폐쇄 공간이나 공동묘지 같은 으스스한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디뎠다가 여지없이 마주하게 되는 괴물들! 주인공들은 괴물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맞서고, 결국은 기지를 발휘해 스스로 위기에서 탈출한다. 간담을 서늘케 하는 사건들에 몸서리치기도 하지만, 괴물의 정체를 밝혀야겠다는 의지, 위기에서 벗어나겠다는 다짐으로 공포에 굴복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시리즈는 ‘용기와 기지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 어린 독자들은 이 주인공들의 오싹한 모험을 엿보면서 ‘두려움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위대한 영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영웅이 된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 주기도 할 것이다. 어린이의 용기를 응원하고 선의를 저버리지 않는 스타인의 위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 ● 리뷰

#### 전문가와 독자들이 미리 본 「구스범스 호러특급」

##### ★ 기관 리뷰

이 책은 스타인의 특별함을 재발견할 수 있게 만든다. 재빠르게 캐릭터에 몰입시키는 능력, 오싹한 아이디어와 눈길을 사로잡는 디테일 묘사, 리드미컬한 이야기의 호흡이 매력적이다. -북리스트  
구스범스 스타일의 허를 찌르는 공포가 더욱 세련되어졌다. -커커스 리뷰

##### ★ 해외 독자 리뷰

엄청난 괴물들과 더 강력해진 이야기,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별 5개를 받을 가치가 있다. -킴벌리(미국, 아마존)  
이 책은 액션과 서스펜스로 가득 차 있어서 짜릿한 공포를 만끽하길 원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여전히 인기가 있다. -리사(미국, 굿리즈)

##### ★ 국내 독자 리뷰

구스범스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 책을 주었더니 구스범스 중 제일 무섭다고 했다. -천지안(한국, 발산초 5학년)  
지금까지 읽었던 구스범스 시리즈 중에 가장 소름이 돋았다. -황효정(한국, 성호초 5학년)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 생생한 묘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조태신(한국, 보정초 5학년)

## ● 각 권 소개

### 구스범스 호러특급 1 좀비 핼러윈 파티 김성용 그림 · 김선희 옮김

핼러윈 파티에 좀비들이 쳐들어왔다!

공동묘지 맞은편 집으로 이사하게 된 케니. 새 동네는 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람들이 다들 좀비에 집착하지를 않나, 옆집 사람들은 집 안에 관을 두지 않나! 어쨌든 새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케니는 핼러윈 날을 맞아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파티를 연다. 그런데 파티장인 지하실에서 아래로 통하는 낡은 문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아래에선 질질 밧을 끄는 소리, 구역질나는 썩은 내, 괴상한 신음 소리가 들려오는데……. 지하실 아래에서 튀어나온 좀비의 정체는?

### 구스범스 호러특급 2 프랑켄슈타인의 개 안병현 그림 · 김선희 옮김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깨어났다!

방학을 맞아 프랑켄슈타인 삼촌의 대저택에 놀러간 컷. 즐거울 줄만 알았던 삼촌 집 방문은 끔찍한 악몽으로 변하고 만다. 깊은 밤 저택을 울리는 짐승 같은 신음 소리, 어두운 복도를 거닐며 방문을 긁어 대는 정체불명의 그림자, 번득이는 두 눈……. 그리고 무시무시한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강아지 포치. 삼촌이 미치광이 과학자라는 사람들의 말이 사실일까?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숨 막히는 반전의 끝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괴물의 정체가 밝혀진다!

### 구스범스 호러특급 3 크리스마스의 유령 (가제, 12월 출간 예정)

\*「구스범스 호러특급」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 ● 작가 소개

### 지은이 R. L. 스타인

1943년에 미국에서 태어났다. 대학을 졸업한 뒤, 어린이를 위한 유머 책과 잡지를 만들고 출판사를 운영했다. 이후 「공포의 거리」를 시작으로 공포 책 작가로 이름을 높인다.

1992년 「구스범스」 시리즈가 출간되면서 스타인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다. 「구스범스」 시리즈는 지난 30여 년 동안 100권이 넘게 출간되었고, 미국에서 텔레비전 시리즈로 제작돼 3년 동안 방송되었다. 「구스범스」 시리즈는 2001년과 2003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 책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으며, 현재는 「해리포터」 시리즈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 책에 올라 있다.

「구스범스」는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제작돼 2016년 1월 한국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 ★ 스타인에게 보내는 전 세계 독자들의 찬사!

스타인은 호리의 왕자다! - YA(미국, 아마존)

스타인의 책엔 모든 것을 잊고 빠져들 수밖에 없다. - 수전 세라(네덜란드, The ReadingList)

스타인은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작가다. 무서운 이야기를 이렇게 유쾌하고 재미있게 쓸 수 있다  
니! - 칼라베라(아르헨티나, 구스범스 팬 블로거)

## [1권]

### 그린이 김성용

일러스트레이터. 부천대학교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했다. 지금은 그림책과 잡지, 사보 등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린 책으로는 『내 일터는 타워크레인』, 『복적복적 도시』, 『호두까기 인형』, 『아주 특별한 돌, 석탄』, 『오싹오싹 유명 영화가 보고 싶어!』 등이 있다.

### 옮긴이 김선희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공부하고 번역가이자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스튜어트 리틀』, 『공부의 배신』, 『홈으로 슬라이딩』 등 백여 권의 책을 우리말로 옮기고, 『얼음공주 투란도트』, 『우리 음식에 담긴 12가지 역사 이야기』 등 십여 권의 어린이 책을 썼다.

## [2권]

### 그린이 안병현

성균관대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무슨'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책 표지와 본문에 그림을 그렸다. 그린 책으로 『골목이 데려다줄 거예요』, 펴낸 책으로 그래픽 노블 『만나러 가는 길』이 있다. 에세이, 그림책,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년과 성년을 잇는 접착제를 개발 중이다.

### 옮긴이 김선희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공부하고 번역가이자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스튜어트 리틀』, 『공부의 배신』, 『홈으로 슬라이딩』 등 백여 권의 책을 우리말로 옮기고, 『얼음공주 투란도트』, 『우리 음식에 담긴 12가지 역사 이야기』 등 십여 권의 어린이 책을 썼다.